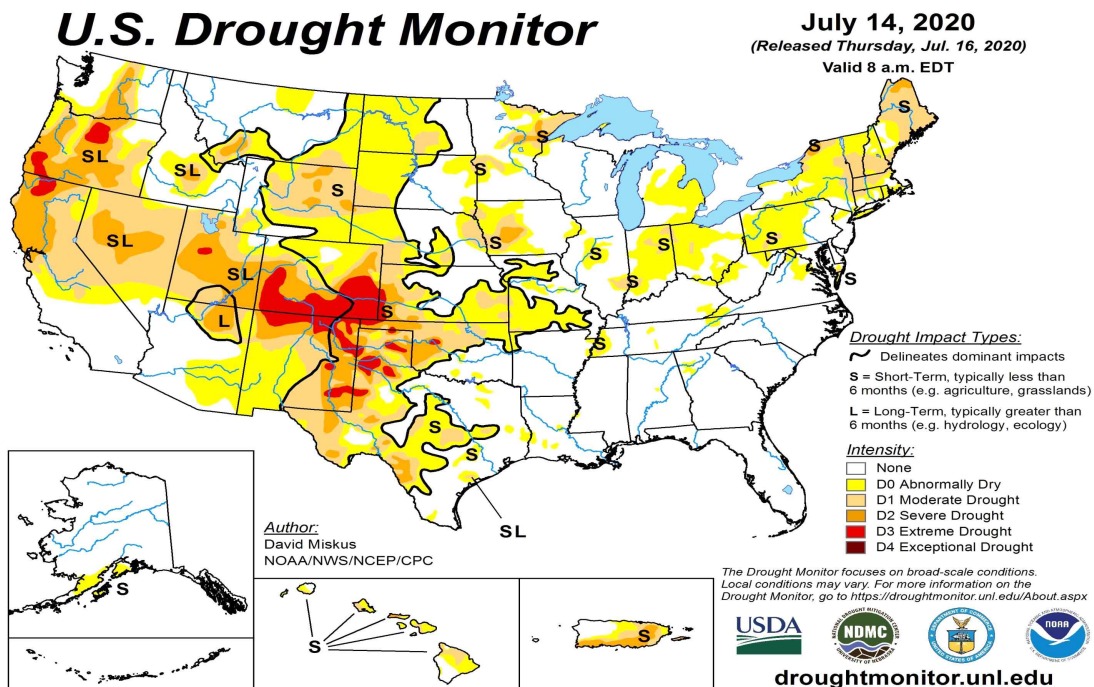


7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9)

□ 미국 기후 현황(7/12~7/18)

중서부에서 더 많은 옥수수와 대두가 생식기에 진입하거나 지나고 있는 중에, 강우가 고르지 않았지만 미시시피 계곡의 중간 및 위쪽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내렸다. 그러나, 인디애나, 미시간 및 오하이오 등의 큰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옥수수 벨트의 동부 일부는 여전히 좋지 못하게 건조했다. 한편 텍사스 북서쪽 구석만큼 먼 남쪽까지 평원 중앙 전역에 유익한 비가 내렸다. 평원 북부 전역은 대체로 유리한 재배 조건을 보였던 (산발적인 소나기와 평년에 근접하거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 반면, 평원 남부는 대조적으로 강렬한 열과 악화되고 있는 가뭄을 보였다. 실제로, 작열하는 열 (주간 기온이 평년 대비 평균 5~10° F 이상)이 로키산맥과 고원의 남쪽 구역을 계속해서 바짝 말렸다. 몬순 순환과 관련된 소나기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열이 남서쪽으로도 뻗어갔다. 서쪽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배했다. 일주일의 지나가면서 점점 더 덥고 습한 날씨가 미국 남부와 동부 대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열과 습기가 강해지면서 멕시코 만 서부 및 중부 연안 주들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가축에 대한 스트레스성 환경 조건이 발달했다.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웠지만 주중 늦게 일시적으로 열과 습도가 중서부에 퍼졌다. 지속적으로 선선한 조건이 고원 북부와 북서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곳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 F 정도 낮았다. 다른 곳은, 북동부에 내린 소나기가 이전의 건조한 조건을 해소해주었고 남부에는 루이지애나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멕시코 만을 따라 그 근처에서 가장 심한 비가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7/13~7/19)**

전국 대부분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우세했다. 뉴 멕시코와 텍사스 서부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8° F 이상 높았다. 대조적으로 뉴 잉글랜드, 평원 북부, 태평양 북서부 및 로키산맥 북부 일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 아이다호와 몬태나의 일부 지역은 평년보다 4° 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전국 대부분이 여전히 평년보다 더 건조한 중에 멕시코만 근처, 플로리다 및 북동부 전역 근처에 있는 포켓은 물론이고 오대호, 미시시피 계곡 및 대평원의 중앙과 북부 일부에는 평균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일리노이, 캔자스 및 위스콘신 일부에는 4인치 이상의 비가 기록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7/12~7/18)****■ 유럽:**

중부 및 동부 유럽은 소나기가 내리는 시원한 날씨였고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대륙의 서쪽 일부에는 단기 가뭄이 증가하고 있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부터 동쪽으로 내린 총 강수량 5~55 mm의 비가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에 대한 수분 공급을 유지 또는 개선해주었다.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서부는 물론이고 발칸 반도 남동부에는 건조한 조건이 우세했다. 불가리아 북부, 이탈리아 서중앙부 및 독일 중앙지역에서 발생한 지역적인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를 제외하면 중앙 및 동부의 재배지 대부분에서 수분 공급이 여름 작물들에게 여전히 유리했다. 중유럽과 동유럽 전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낮아서 온도에 민감한 생식기를 거치고 있는 여름 작물을 위해 최적에 가까운 조건을 유지했다. 한편, 단기 가뭄 포켓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 으로 생식기 여름 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이 감소된 스페인과 프랑스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 (5 mm 이하)가 우세했다. 건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선선한 기온 (평년보다 최대 3° C 낮음) 이 수분 결핍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 서부 전역에서 지역적으로 더운 조건 (평년 대비 최대 7° C 높은) 이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해바라기와 면화에게 (해바라기보다는 덜한 정도로) 가해지는 가뭄 스트레스를 배가시켰다.



■ 구소련(서부):

동부 재배지역에 예외적인 폭염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훨씬 더 시원한 날씨가 오면서 비가 내렸다. 한랭 전선 하나가 동쪽으로 꾸준히 이동하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및 서러시아의 많은 주요 여름 작물재배지에서 중간-강한 소나기와 뇌우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 를 촉발했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비가 훨씬 더 선선한 날씨 (평년의 1~3° C 이하)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이다; 서러시아는 7월의 첫 10일간 자주 발생했던 작열하는 폭염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대에 도달)의 해소가 너무나 간절했었다. 농민들이 포장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여름 작물에 미친 영향의 파악은 안 되겠지만 러시아의 남쪽 구역의 가장 건조한 지역들에 있는 생식기 옥수수에게는 잠재 수확량이 다소 손실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옥수수와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열과 가뭄에 더 내성이 강함)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양호-우수’ 수준에 있었고 러시아는 남부의 ‘적당-불량’ 에서 중앙 구역의 최북단의 ‘아주 우수’ 까지 다양한 범위에 있었다. 반대로, 이 지역의 동부 일부는, 생식기 봄 곡류가 낮 기온이 41° C인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극심한 폭염 (볼가 구역의 남동부는 평년 대비 최대 9° C 높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볼가 구역 남동부에서 현저했던 단기 가뭄기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에 가장 더운 날씨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 생식기 봄 곡류와 여름 작물들의 잠재 수확량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 동아시아:

더 건조한 날씨가 홍수 타격을 입어서 절실했던 중국 남동부를 구제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더 많은 호우가 내리고 있어서 400 mm 이상의 강우가 보고된 양쯔 계곡 아래쪽에서는 홍수를 악화시켰다. 양쯔 계곡 아래쪽 대부분에서 6월 1일 이후로 내린 강우 총량은 1,000 mm (평년의 2.5 배 이상)에 육박하고 있어서 벼와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한편 북동부에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발생했다. 계절의 상반기 내내 북동부 (랴오닝 제외)에 계속 비가 와서 작물에게 물 공급이 잘 되었지만 최근의 폭염과 건조가 생식기 옥수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다. 그밖에 북한에는 북중국과 비슷한 조건이 보고되었고 남한과 일본에는 25~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내렸다.

■ 호주:

비 (대체로 15~25 mm)가 서호주의 밀 벨트를 뒤덮어 영양기 밀, 보리 및 캐놀라를 위해 표토 수분을 고맷게 상승시켜주었다. 반대로, 남호주, 빅토리아,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및 퀸슬랜드 남부에 내린 국지성 소나기 (지역적으로 10 mm 이상)는 영양기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을 위해서 추가 수분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다.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유지하려면 이들 지역에 더 광범위하면서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 호주 동부에는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가 겨울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작물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했다. 밀 벨트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의 1° C 내외에 있었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10도대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겨울 곡류의 발아를 위해 수분이 필요한 몇몇 지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절 야외 작업은 거의 끝났다.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대는 건조했고 불과 몇 개의 국지적인 장소에서 측정 가능한 비가 내렸을 뿐이었다 (1 mm 이상). 아르헨티나 중앙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부근이었는데 낮 최고 기온은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섭씨 높은 10도대부터 코르도바와 산타페 남쪽 구역의 낮은 20대 범위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이들 동일 지역에서 기록된 밤 최저 기온은  $-5^{\circ}\text{C}$ 이어서 출현 중인 곡류의 성장을 제한하였다. 엔트레 리오스에서 북쪽으로는 보다 따뜻한 조건 (최고 기온이 낮은 30도대에서 중간 30도대 사이)이 우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16일 현재 옥수수는 92% 수확되어 작년보다 16 포인트 앞섰다. 서부 생산 지역에서 건조가 파종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밀은 작년의 89% 대비 91% 파종되었다. 마찬가지로 보리는 작년의 84% 대비 82% 파종되었다.

**■ 브라질:**

남부 생산 지역에서 최근 유익했던 강우기 이후에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날씨가 밀의 출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산타 카타리나에서 지역적으로 내린 강우 총량은 10 mm 이상이었지만 다른 곳은 건조하고 대체로 따뜻한 날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중간 및 높은 20도대, 낮은 서리 위험)가 우세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13일 현재, 11% 수확되었고 나머지 작물의 71%는 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99% 파종되었다. 비슷하게 7월 16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이 97% 파종되었다. 그밖에, 브라질의 중앙 및 북동부 내륙에서는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날씨가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고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가 내렸다 (지역적으로 25 mm 이상). 마토 그로소에서 7월 17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가 76% 수확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10 포인트 늦춰진 것이었다. 한편 면화는 작년 (14%)과 비슷하게 15% 수확되었다.